

편 집 후 기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욱 유익한 「건설기술|쌍용」을
만듭니다.

현장에서 얻은 귀중한 교훈, 새로 적용하는 기술, 혼자만 알고 있기에 아까운 노하우를 「건설기술|쌍용」에 풀어 놓으세요. 여러분의 귀한 지식과 경험을 정성껏 엮어 보배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Trouble Shooting, 기술칼럼, 신기술·신공법, 현장리포트, Q&A 등에 직접 참여하고, 「건설기술|쌍용」에서 다룬 만한 참신한 기획거리도 알려주세요. 보내주시는 기술정보를 「건설기술|쌍용」에 소개하고, 참여해 주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쌍용인의 동반자 「건설기술|쌍용」은 언제나 여러분 앞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 알립니다 |

「건설기술|쌍용」을 위해 일하게 된 새 얼굴을 소개합니다.



전우태 대리 | 편집위원 기술개발부
02-3433-7709
jeonwt@ssyenc.com

| 원고접수처 「건설기술|쌍용」을 함께 만드는 편집·실무위원들 |

편집위원장	최장식 전무 (7064, choijangsik@ssyenc.com)
기술개발부	정대웅 차장 (7706, danielyc@ssyenc.com) 전우태 대리 (7709, jeonwt@ssyenc.com)
기획부	최세영 팀장 (7117, chtpdud@ssyenc.com) 김지현 대리 (7113, judy@ssyenc.com) 김중범 사원 (7109, tiger@ssyenc.com)
토목기술부	이기환 차장 (7772, ikhjin@ssyenc.com) 김창수 대리 (7767, conshot@ssyenc.com)

「건설기술|쌍용」은 매 분기 마지막 달(3, 6, 9, 12월) 1일에 봄, 여름, 가을, 겨울호로 발간되며, 발간일 2개월 전까지 의견을 주시면 편집에 반영됩니다.

건설기술|쌍용

2004년 여름호 통권 제 31호(비매출)

발행인 김석준
발행일 2004. 6. 1
발행처 쌍용건설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7-23
TEL : 02-3433-7114 FAX : 02-3433-7739
www.ssyenc.com / www.ssiict.co.kr
e-mail : danielyc@ssyenc.com
kskon@ssyenc.com
편집디자인 디자인폭스 (TEL : 02-730-0264)

한국의 정월

학을 마당에 품은

건재고택(建制古宅)

- 지정별 : 중요민속자료 제233호
- 소재지 :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196번지
- 구조 : 5동(안채, 사랑채, 문간채, 가묘, 하인집)



조선 숙종 3년(1677)에 현 소유자인 이준경씨 9대 선조인 위암(魏巖) 이간(李柬)선생이 출생한 가옥으로 소유자의 증조부인 건재(健齋) 이상익(李相翼)공이 현재의 모습으로 건립되었다. 사랑채에 이간(李柬)공의 교지가 보관되고 있어 입향조의 근거 자료가 되고 있으며 이상익공이 전라도 영암군수를 지내 일명 영암택 이라고도 불리워지고 있다. 건물배치는 설화산을 진산으로 하여 산세에 따라 서북향으로 하고 설화산 계곡에서 흐르는 명당수를 마을로 유입하여 건재 가옥을 비롯한 마을 내 대부분의 반가에서 정원수로 활용하고 있고 화재에도 대비하고 있다. 가옥의 구성은 문간채, 사랑채, 안채를 주축으로 하여 안채의 우측에 광채 좌측에 곳간을, 우측 윗쪽에 가묘가 배치되어 있으며 가옥 주위에 자연석 돌담을 두르고 돌담밖에는 초가로 된 하인집이 있다. 사랑채와 문간채 사이에 넓은 사람마당에는 다음 마을의 반가에서 볼 수 없는 정원이 꾸며져 있다. 소나무와 향나무, 단풍나무 등이 우거진 이 정원은 이 집을 지을 때부터 기본적인 정원 구성이 되어 있던 것을 지금으로부터 70여년전 이용기의 손에 의해 더욱 정교하게 꾸며졌다. 사랑채 앞마당에는 학의 모양을 한 연못으로 설화산에서 흘러온 수로가 담장 밑에 설치된 입수구(入水口)를 따라 완만한 곡선을 그리면서 낙차를 가진 작은 폭포가 되어 연못으로 떨어진다. 또한 수로 양쪽 가장자리는 자연석을 놓아두어 수심과 함께 계류(溪流)의 아름다운 운치를 느끼게 한다. 또한 가옥 처마밑과 기둥에는 많은 편액(扁額)과 주련(柱聯)이 걸려있어 운치를 더해주고 있다.